



<1> '70년' 의미

올해로 70년을 맞은 '호남예술제'는 광주일보가 지역 문화예술계와 함께 쌓아 올린 예술 금자탑이다. 수많은 예술인에게 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며 클래식, 미술, 문학, 무용,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예술가들을 배출해 왔다. 호남예술제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 보고 경연을 거쳐간 예인들의 발자취, 앞으로의 미래를 조망해 본다.

70년간 60만명 참가...지역 넘어 세계로 뻗어간 '호남 예술'

1956년 창설 호남 역사 담아낸 '예술 대제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본사 社는 '문화예술 창달' 맥 이어

문학·미술·음악·무용·국악 경연...예술인 축제



1970년대까지 문화예술 행사가 드물었던 지역에서 '호남예술제'는 예술 꿈나무들의 중요한 등용문이었다. 특히 광주가 '예향' (藝鄕)이라는 브랜드네이밍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데는 호남예술제의 파급력을 빼놓을 수 없다.

1952년 창간한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는 창립 4년째인 1956년 새내기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지역문화를 창달한다는 취지에서 첫 예술제를 시작했다. 1956년 6월 14일자 2면에 게재된 '제1회 호남예술제' 개막 이틀째 기사는 첫발을 내딛었던 당시의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혹은 명주실같은 비로 혹은 호우(豪雨)로 흐렸다 개었다 견잡을 수 없었던 전날까지의 날씨도 살짝 개어 이날따라 유난스레 드맑은 가운데 본사가 보내는 제1회의 호남예술대제전은 13일 화려한 막으로 열었다. 싹트는 어린이들의 지적향상을 꾀하고 이르러서는 호남의 향토문화발전과 한국의 문화향상에 기여하자는 원대하고도 대규모의 동(同)예술제전은 이미 호남지방의 절대적인 인기와 성원 그리고 기대를 집중시켜 그의 성과와 연면한 계속을 희원하는 소리소리에 부응하여 오늘의 개막에 이르렀거니와 이는 드맑은 신록의 6월에 본사가 보내는 일대 제전이라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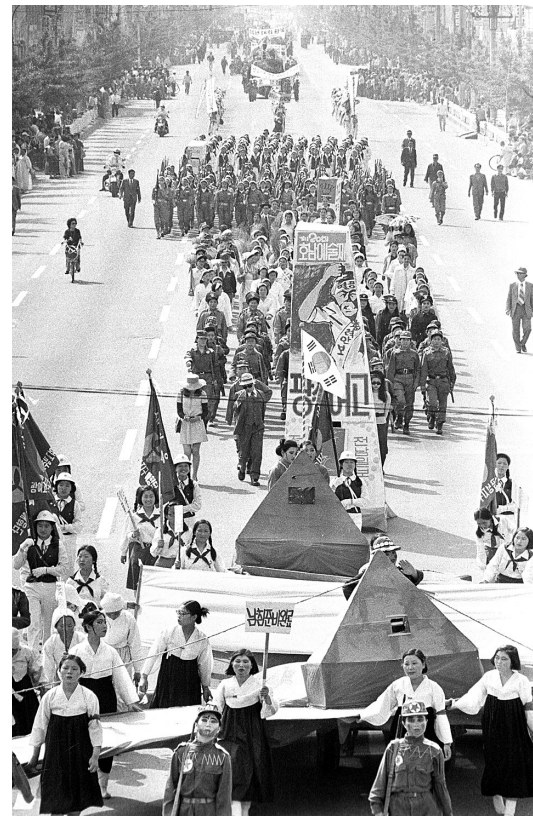
기사는 하루 전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석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사흘간 무용부(독무·군무), 음악부(독창·합창·기악), 동극(童劇) 예선과 결선 등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앞서 5월에 열린 글짓기를 비롯해 사생대회에는 허백련·오지호 화백, 김현승 시인 등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이 대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 척박한 문화 풍토 속에



제9회(1964년) 경연 당시 동방극장(무등극장) 앞에서 경연을 관람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여고생들(왼쪽)과 1975년 열렸던 '제20회 호남예술제'에서 시가 행진을 하는 학생들. <광주일보 자료>



서 처음 시작된 학생 예술제전은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1회 대회 폐막날인 15일 음악·무용·동극 결선이 열린 동방극장(무등 시내마전신)은 입주의 여지없는 만원을 이뤄 바깥은 입장을 못한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또한 당시 6월 17일자에 실린 '아동예술사에 찬연(燦然)'이라는 제목의 폐막 기사는 '호남예술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여했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기대·이념 예술제를 통하여 구김살 없는 그들의 천성과 비길 곳 없는 그들의 재능을 보고 우리는 다음 세대(世代)에 새로운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다."

이처럼 기사는 1회 행사를 우리나라 어린이 예술 운동사의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평했다.

1956년부터 시작된 호남예술제는 7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며 예술 꿈나무 등용문이자 미래 예술가를 길러내는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어져 온 것은 지역민들의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문화예술 창달이라는 본사의 사시(社志)와도 맥이 닿아 있다.

그동안 문학을 비롯해 미술, 음악, 무용,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연이 펼쳐졌으며 참가자는 모두 60만여 명에 이른다. 팬데믹으로 현장 경연과 집합

이 제한되던 시기에도 예술제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호남 문화예술의 기수'라는 자부심에서 비롯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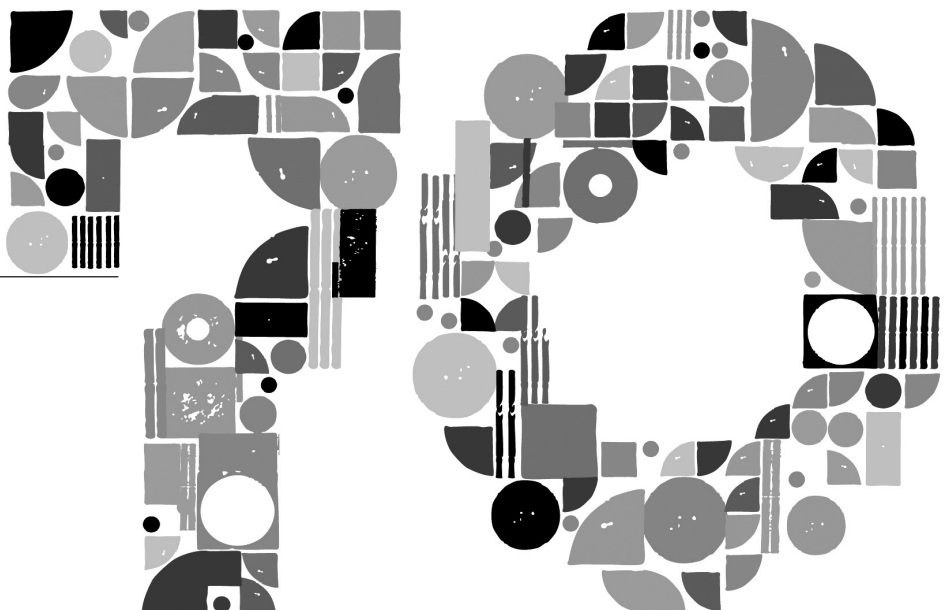
호남예술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호남의 역사를 담아내는 '예술 대제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예술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적지 않다. 1961년 제6회 행사는 4·19 혁명 1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행사가 11월로 연기돼 개최되기도 했다.

4000여 명이 참여한 이듬해 행사는 금남로·중앙로에서 시가행진도 열렸다. 도심 한복판에 예술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졌고, 15회 행사 당시에는 대형 애드벌룬이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위에 떠올라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광복 3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제20회 호남예술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진행됐다. 전남도청 앞에서 출발한 참가자들은 다양한 분장과 옷차림으로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입간판을 들고 광주 공설운동장까지 시기를 걸으며 지역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호남예술제 출신

글로벌 예술인들

세계무대서 빛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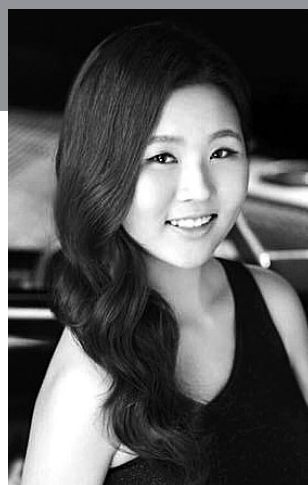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운
서양화가 황영성
소프라노 강숙자
피아니스트 문지영
김선희 전 한예중 교수
가야금 선영숙·문명자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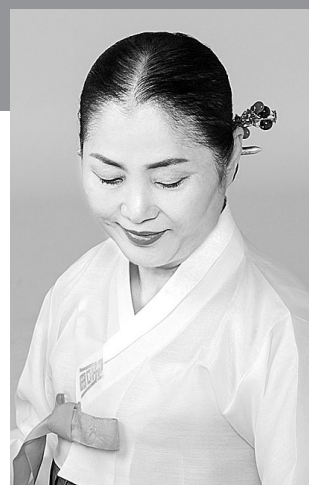
황영성 화백



피아니스트 문지영



김선희 전 한예중 교수



가야금 선영숙

호남예술제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출한 예술인을 배출했다. 많은 이들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거나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지난 2023년 세상을 떠난 '한국 바이올린계 대모'로 꼽히는 김남운 씨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 호남예술제에 참가했고 그 인연으로 1985년 '제30주년 호남예술제 출신 예술인' 특별 공연에도 참여했다. 이후 서울대와 한예중 교수로 재직하며 이경선, 백주영, 권혁주, 신지아, 클라라 주미 강 등 젊은 비르투오소를 배출하는 등 후학 양성에 집중했다.

60여년 화업을 이어온 황영성 화백도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작가다. 중학교 시절 예술제에 참가해 입상했으며, 이후 남도 현대화단의 거목으로 성장했다. 1965년 나주 영산포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국전 입선과 6차례 특선, 국전 문화공보부장관상(1973년)을 수상하며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1990년대 이후로는 국내를 넘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 황 화백이 천재했던 '가죽'이라는 주제는 그의 의미와 범주가 다변화된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악 부문에서는 열약한 지역 환경에서도 '강숙자 오페라 라인'을 이끌고 있는 소프라노 강숙자 씨

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길애령, 김철웅, 조수현, 정애련 교수 등이 호남예술제를 거쳐 갔다.

제60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도 눈에 띈다.

부조니 국제 콩쿠르는 세계적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페루치오 부조니를 기리기 위해 1949년 창설됐다. 문 씨는 이외에도 제네바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처음으로 피아노 부문 1위, 2012년 독일 에틀링겐 피아노 콩쿠르 1위에 올라 관심을 받았다.

전주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도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인물이다.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시벨

리우스 콩쿠르, 쾰른 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 입상 등 화려한 경력의 신 씨는, 호남예술제를 발판 삼아 국제 무대를 중형무진하고 있다.

이외 중앙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 호남예술제에 참가했던 발레리나 김선희 전 한예중 교수, 최영훈 전 광주시립미술관장, 제9회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설재복 소설가 등도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예술가들이다. 가야금 주자 선영숙 씨나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예술단 발발가왔고 그를 이끄는 문명자 단장도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